다산포럼

수명 이야기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의학사

각국의 통계당국은 매해 연말 그 전 해의 평균수명(정확하게는 평균 기대여명), 영아사망률 등의 정보를 담은 '생명표'를 발표한다. 생명표는 각 연령대의 연간 사망률을 종합해서 작성한다. 예컨대 2011년 0세~1세 미만, 즉 2011년에 태어난 아기의 1년 동안 사망률(영아사망률)은 12월 31일생이 첫돌을 맞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관찰해서 얻는다.

다른 연령대 사망률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표는 해당 연도의 1년 뒤에나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2013년 생명표는 2014년 말이 되어야 구할 수 있고,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11년 치이다.

2011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1.2세로 세계 톱클래스 수준이다. 여성은 84.5세로 세계 6위, 남성은 77.8세로 세계 20위이다.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비례사망지수와 같은 보건지표는 의료수준 및 배분 정도뿐만 아니라 산업화 정도, 생활수준, 교육수준 등을 잘 반영하는 한 국가의 종합성적표이다. 보건지표를 보면 국가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보건지표는 당연히 1인당 국민소득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쿠바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다. 쿠바는 소득은 중하위권이지만 보건지표는 상위권이다. 비교적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국민들에게 골고루 베풀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소득, 의료수준에서 세계 최상위권인데도 보건지표는 OECD 국가 중에서 바닥이다. 이것은 소득 격차가 크고, 의료서비스의 배분도 매우 불균등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몇 살이나 되었을까? 아쉽게도 그것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관련 자료가 많이 발굴되었고, 연구도 충실히 되어 있는 서유럽 나라들을 보면 산업화가 막 시작되던 1800년 무렵의 평균수명은 35세 안팎이다.

조선시대 수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국왕 27명의 사망 연령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가장 장수한 조선시대 왕은 만 81세 5개월에 세상을 떠난 영조이다. 두번째는 72세까지 산 태조 이성계이다. 70살(고희)을 넘긴 임금은 27명 중 불과 2명. "인생 70 고래희"라는 옛말이 들어맞는다.

그 다음으로 고종(66세), 광해(66세), 정종(62세)이 뒤를 잇는다. 회갑 잔치를 치른 왕은 20%도 안 된다. 사망 연령을 평균 내보면 46.1세이다. 왕위에서 쫓겨난 뒤 16세에 살해당해 천명을 누리지 못한 단종을 제외하면 47.3세이다. 오늘날의 한국 남성 평균수명과 도저히 비교할 바가 못 된다.

하지만 국왕들이 일반 백성들보다는 오래 살았던 것도 사실이다. 유럽의 자료들로 유추해 보건대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35세 내외, 혹은 그 이하였을 것이다. 의식주 생활에 궁핍함이 전혀 없고, 의료 혜택도 가장 많이 받았을 국왕들이 백성들보다 오래 산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사람은 헌종(7세)이다. 그리고 순조(10세), 단종, 명종, 고종(이상 11세)이 그 뒤를 잇는다. 다시 말해 모든 왕이 영유아기(0세~4세 미만)를 지나 왕위에 오른 것이다.

근대화·산업화 이전 영유아 사망률은 엄청나게 높았다. 여러 나라의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출생아 셋 가운데 하나는 네 살까지도 살지 못했고, 넷 중 하나는 첫돌조차 맞이하지 못했다. 왕가도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예컨대 최장수 임금 영조의 자녀 14명 중 다섯이 네 살을 넘기지 못했다.(201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첫돌까지 살지 못하는 아기는 3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영유아기를 살아 넘긴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10살가량 늘어날 것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보면 국왕과 백성의 수명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영유아 사망률을 감안하면 조선시대 국왕이나 백성이나 지금에 비해 수명이 40년, 혹은 그 이상 짧았다. 영유아 사망률은 말할 것 없고, 모든 연령대의 사망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옛날도 아니지만 요즈음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다. 아니, 지금이 수백만년 인류역사에서 처음 경험하는 신시대, 신세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기고

국립 호남권생물자원관 조기에 건립해야

김종일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월 22일은 UN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국제사회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생물자원의 보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목포 유달초등학교에는 국내에서 잡힌 유일한 호랑이 박제표본이 전시돼 있다. 1908년 영광 불갑산에서 생포한 호랑이를 일본인이 구입해서 박제한 후 유달초등학교에 기증한 것이다. 영광군과 목포자연사박물관이 이 박제표본의 이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맘때 아파트 화단과 공원 등지에서 그윽한 꽃향기를 품어내는 라일락은 우리나라의 자생 수수꽃다리를 외국에서 육종 개량한 것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기가 있는 구상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데 외국으로 반출되어 상업화되었다.

우리가 생물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시기에 소중한 자원이 해외로 반출되었고, 선진국들이 이를 육종 개량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품종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수입할 경우 비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UN이 발표한 생물다양성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종 가운데 31%가 사라졌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기후변화 가속화로 동식물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물자원의 감소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생물자원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명공동체를 구현하는 핵심요소이자 산업발전의 원천소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생물자원 보유국가의 권리가 인정되면서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특히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후 생물자원은 영토주권만큼 중요해졌다. 이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세계 각국의 생물자원 전쟁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부는 생물자원의 관리와 생물주권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을 건립했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물자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서남해안 도서 및 연안의 생태계 및 생물자원 조사·연구 분야를 특화하여 건립될 예정이다. 서남해안 도서 및 연안지역은 희귀생물과 미기록종, 자생생물 전통지식 등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생물자원의 보고이며,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생태계 변화 연구의 최적지로 꼽혀온 곳이다.

그런데 지난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생물자원은 식량산업, 생물의약산업, 생태관광 등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신산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국가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물자원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무한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경제성 논리로 생물자원의 존재가치와 이용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다.

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의 발굴, 확보, 소장 및 연구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선도기관이다. 다양한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물자원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보전·이용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기대되기도 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은 생명이 달린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대비하여 부지 및 건물면적 등이 축소되었다. 이제 더 이상 늦춘다면 생물자원으로부터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놓치게 될 것이다.

기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방관자의 침묵은 또 다른 '학폭'

이세일
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

지난해 11월 학교·성·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교육,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구체적인 대책의 실효성 확보 일환으로 일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되었다. 필자는 현재까지 여성청소년과 과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학교폭력의 많은 사례와 피해행위로 인한 가정의 눈물, 우리 주위에 많은 침묵의 방관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과거의 안일했던 태도에 반성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크게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라는 세 가지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실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그 발생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장난이라고 치부하면서 가해행위를 반복한다. 피해자는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방관자는 가해자가 아니며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 학교폭력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현실이다.

방관자 효과(傍觀者效果) 또는 제노비스 신드롬(Genovese syndrome)이란 말이 있다. 이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이다. 또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판단하여 행동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대중적 무관심 또는 구경꾼 효과라고 하기도 한다.

과거 지하철 철로에서 떨어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않고 동영상만 촬영하는 상황이 언론에 방영되었던 방관자 효과는 현대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로 대변되기도 한다.

그러나 '나만 아니면 돼'라는 표현은 최근 많은 인기 예능프로그램에서 웃고 떠드는 장면으로 방송되고 있다. 이를 시청하는 학생들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보고 있어 우리 사회가 이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없이 방관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학생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어울리면서 우정, 책임감, 도덕의식 등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형성해 가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어른 사회를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우리는 미래를 주도할 청소년들에게 참된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학교폭력의 가해자에게는 강한 비난을, 피해자에게는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면서도 방관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등 어른의 규범과 잣대로만 그들을 평가하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보다 많은 관심과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들에 대한 어른들의 방관자적 모습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학교폭력을 하지 말자라고만 외쳤던 기성세대로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나'보다는 '우리'라는 말, '나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 많은 학교,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의식보다는 '우리 함께 하자'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그 역할은 우리 사회 어른들의 몫이자 시급을 다투는 문제다.

'부부의 날' 우울한 현주소…'외도 대한민국' 걱정

오늘은 부부의 날이다. 최근 외도로 인한 살인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외도는 당사자들 가정의 파탄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정파탄은 물론 살인까지 저지르는 무서운 결말로 치닫고 있다.

부부사이에 어느 한쪽이 바람을 피워서 서로 간에 신뢰감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실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남편과 아내의 외도 비율이 비슷해졌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한 연구자가 '기혼남녀의 혼외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 논문 연구에서 '혼외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남성이 46.2%, 여성이 26%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 거의 절반에 육박했으며,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현실적으로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님을 보였다. 더 놀라운 것은 외도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 '현재 외도 중'인 경우가 여성이 14.3%로서 남성 12.3%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외도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부녀들이 채팅에 빠져 가정에 소홀하거나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외도는 필연적으로 이혼이라는 결과를 수반한다.

최근 대한민국은 이혼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이혼율 세계 3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이혼 가구 수는 127만을 넘어섰다. 우리가 외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생활의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존재했던 간에 부부가 혼인서약으로 일생을 함께하며 정절을 지키겠다고 서약해 놓고 어느 한쪽이 외도라는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부부의 외도는 배우자의 인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뿐아니라 가정폭력의 빌미를 제공하여 자녀의 성장에도 정서장애라는 치명타를 준다. 하여 건강한 부부관계 형성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가정폭력의 주범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학동

社說

5·18 왜곡에도 방관하는 박근혜 정부

5·18 민주화운동이 33년을 맞았으나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죽음과 피로써 이 땅에 민주화의 초석을 이룬 지 한 세대가 지났지만 희생자 수와 발포 명령자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등 미완(未完)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과 광주시민은 이념 논쟁의 굴레 속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외면으로 5·18 기념식이 또다시 '반쪽 행사'로 치러졌는가 하면, 5·18에 대한 폄하와 비방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일부 종합편성체널은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탈북자의 발언을 방송해 파문이 일고 있다. 5·18 관련 수사나 재판 과정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으나 이를 여과없이 방송했다. 5·18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다.

보수 성향의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는 게시공간에 5·18 당시 희생된 시신과 계엄군에게 포박된 시민들을 '배달될 홍어 포장 완료'라는 글을 올렸다니 제정신들인가. '홍어'는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는 은어로,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독하는 패륜행위나 다를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과연 민주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했으면 광주시와 5·18 관련 단체, 정치권 등이 20일 역사 왜곡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섰겠는가.

광주시 등은 해당 종편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여의치 않다면 시청 거부운동도 펴야 한다. 특히 일간베스트에 대해선 사이트 폐쇄와 법적 책임을 동시에 물어야 한다. 정치권도 5·18이 더 이상 왜곡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특별법에 민·형사소송 강화 등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면 대응을 통한 역사 바로잡기는 5·18 정신을 지키고,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

순천박람회 지역경제 효과 미미해서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흥행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고 한다. 이 같은 추이가 지속한다면 애초 박람회가 겨냥했던 지역발전 견인차 구실이 자칫 공수표에 그칠 공산이 커 순천시 등의 적극 대처가 요구된다.

지난 4월 20일 시작된 정원박람회가 26일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순천만 갈대밭을 비롯한 전국에 잘 알려진 자연환경을 활용해 개막한 국제규모 행사가 초반 흥행에 순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박람회 방문객이 지역에서 돈을 쓰지 않아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다. 방문객들이 스쳐만 간다면, 행사 예산마저 건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상정할 수 있다.

순천시가 최근 박람회 관람객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 가까이는 숙박하지 않고, 절반 가량은 음식도 사먹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다. 방문객을 지역으로 끌어들여 경제활성화에 일조하게 하겠다는 목표가 엇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람회 성공 개최는 관람객 수도 중요하지만 경제효과가 기본 요건이다.

박람회 조직위 측은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방문객들이 하룻밤이라도 묵고 가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화장실과 쉼터, 식음료 설비 등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지 꼼꼼하게 챙겨 행사가 끝나는 10월 20일까지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이다. 지역 내 숙박·음식업소 주인들은 친절한 서비스로 단 한 사람의 투숙객이라도 붙잡아야 한다.

박람회장 사후활용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서도 보았듯이 대규모 국제행사는 일단 끝이 나면 썰렁해지기 십상이다. 정원박람회가 실패한 대규모 국제행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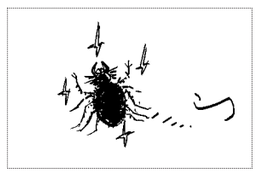
無等鼓

살인 진드기

그는 악취가 지옥의 냄새처럼 배어 있는 18세기 파리의 한 시장에서 태어났다. 영아 살인죄 판결을 받은 여인의 사생아인 그는 인간이 갖고 있어야 할 어떤 체취도 풍기지 못하지만 모든 냄새를 소유하고 지배하려 한다. 그리고 최상의 향기를 얻기 위해 스물 다섯 번의 살인을 저지르는 사악한 악마가 됐다.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의 주인공 그루누이 이야기다.

책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은 '진드기'에 비유된다. '홀로 몸을 동그랗게 말고 나무에 웅크린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고(중략) 짐승의 피가 우연히 나무 바로 밑에 다가올 천재일우의 기회를 위해 고집과 집념으로 살아남는' 진드기처럼 그루니에 역시 자기 자신 속에 틀어박힌 채 더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내 놓는 건 배설물 뿐인 '인간 진드기'였다.



주디스 콜의 '떡갈나무 바라보기'에는 18년 동안 굶주린 진드기 이야기도 나온다. 알을 낳기 위해 포유동물의 따스한 피가 필요한 암컷 진드기의 경우 오랫동안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로스토크의 동물연구소에는 18년 동안 굶주린 진드기가 살아 있다고 적혀 있다.

사람들이 흔히 끈질긴 사람을 두고 부정적인 의미로 '진드기 같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최근 난데없는 '살인 진드기'가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살인 진드기로 알려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의심 환자가 10명에 달하고, 이중 1명이 사망했다.

보건 위생 수준이 높은 일본에서도 13명이 발병해 8명이 사망했고, 중국의 경우 2007년 허난(河南)성 일대에서 500여명의 환자가 발생,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어 공포감이 더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철저한 역학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제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